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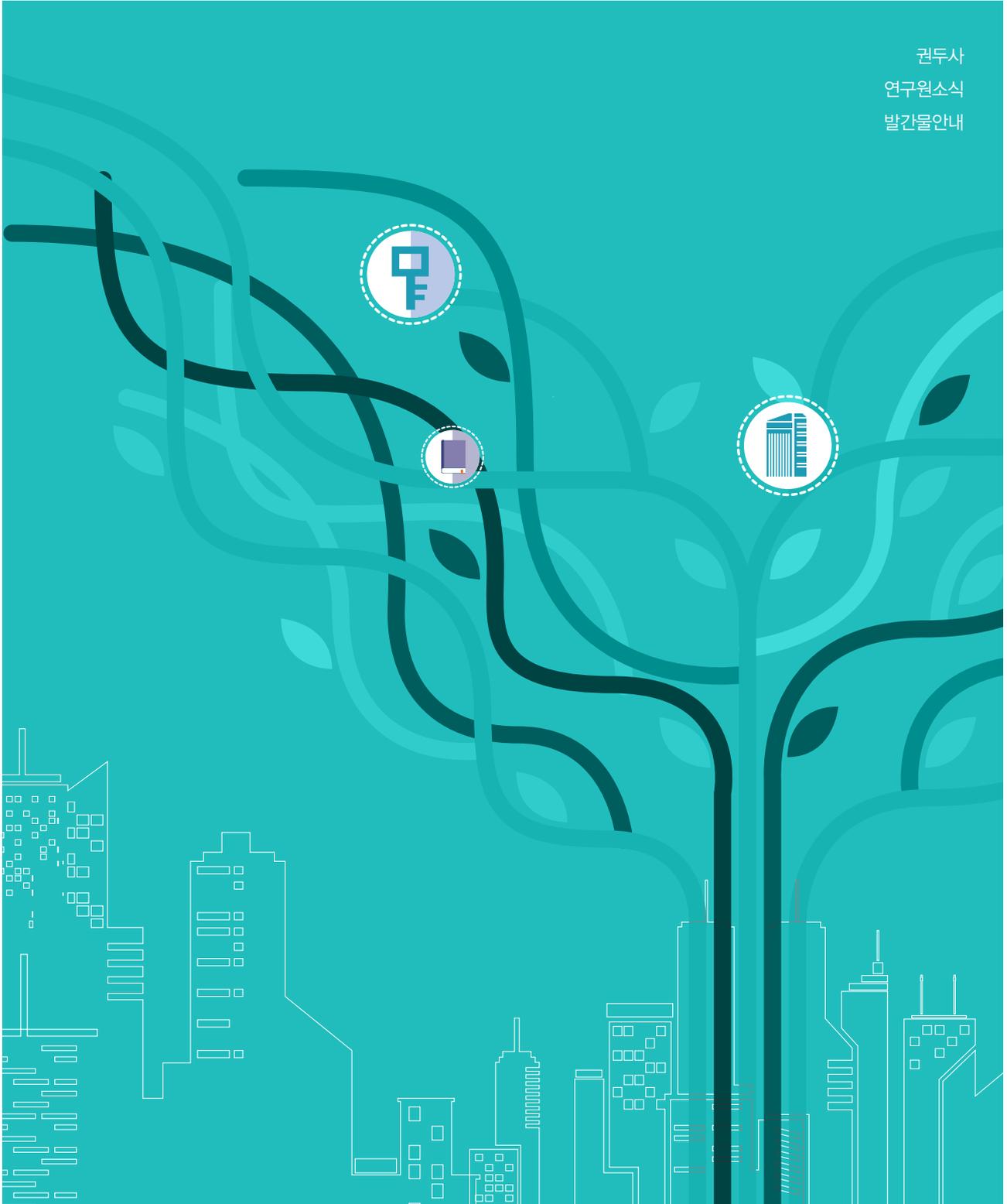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36호 2015년 5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자 라00076 발행일 2015년 5월 발행(36호)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두사
연구원소식
발간물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 회장 김택환입니다.

희망을 품고 출발한 2015년도 봄인 듯 싶더니 벌써 더위를 걱정하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요근래 들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과연 우리에게 봄이란 계절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곤합니다.

대내외적인 건설환경이 우리 전문건설인들이 사업을 펼쳐나가기에는 그리 녹록치 않은 현실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어 아마도 따뜻하다고 느끼는 우리 회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들께서 사업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평생을 건설현장에서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만큼의 보람과 자부심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서는 안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난관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께서 그 동안 해왔던 것처럼 전문건설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어려움속에서 기회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 환한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건설관련제도는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전문건설인들에게 손해가 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들도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건설산업은 어떤 혁신적인 방안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이를 실천해 가는데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우리 전문건설인들의 싱크탱크로써 회원들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최선봉장인 우리 전문건설인들이 마음놓고 시공에 임할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 건설한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우리 회원들의 막힌 활로를 뚫어나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항상 건설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회원님들의 건승과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5 성과발표회' 개최

- “2015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성과발표회”가 지난 4월 23일(목) 오후 2시,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이번 성과발표회는 연구원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과제 및 주요 성과들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 관계자 및 학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연구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 금번 행사에서는 연구원의 ‘2014년 수행 연구과제의 개요 및 기대효과에 대한 소개(이종광 연구위원)와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활성화 방안(홍성호 연구위원), 공제조합 보증리스크 측정방안 연구(김태준 선임연구원), 맞춤형 물산업 해외진출 방안(박승국 연구위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좌장 강인석 회장(한국건설관리학회)의 주재아래, 변희섭 교수(한림대학교), 이병철 책임연구원(K-water연구원),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대한전문건설협회), 장진우 부사장(일양토건)이 참여한 전문가집단의 열띤 토론과 격려로 향후 성과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 우리 연구원은 이번 성과발표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확보와 권익을 증대하는데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비효율적인 제도와 비합리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전문건설업의 발전에 필요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선도하는 연구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연구용역 계약 체결(2건)

- 우리 연구원은 지난 5월 18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2건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갔다.
- 두 건의 과제는 「조합의 합리적인 자산운용 방안」과 「준조합원제도 도입에 따른 보증·용자 상품개발」 연구용역으로 각 과제수행을 통해 조합의 자산운용 현황을 점검하여 합리적인 자산운용체계를 마련하고, 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보증기관으로서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소규모 복합공사 사례조사 실시

- 우리 연구원은 5월 20일, 화성시청을 시작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공사 발주기관 사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사례조사를 통해 실제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사용여부, 시공 시 만족도, 발주 시 고려사항 등 의견을 나누었으며, 우리 연구원에서는 기존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한 홍성호 연구위원과 박선구 책임연구원이 참여했다.

한국철강협회, 「건설용강재 수입재 현황조사」 연구용역 계약 체결

- 우리 연구원은 한국철강협회와 「건설용강재 수입재 현황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동 과제에서는 건설용강재의 사용품목·유통경로 및 품질조사와 더불어, 수입재 시장규모 예측 및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 연구원의 유일한 연구위원과 홍성호 연구위원, 박선구 책임연구원, 정대운 연구원이 맡아 내년 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 지수실무위원회 참석, 대기업 동반성장 활동 평가

- 우리 연구원의 이종광 연구위원이 지난 5월 14일, 동반성장위원회 지수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하여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한다.

‘중소기업실태조사 실사업체 기술력 평가회의’ 참석

- 우리 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지난 5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실사업체 기술력평가회의’에 전문평가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동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조사업체에 대한 외부 평가위원의 기술력 평가를 취합·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건설업 분야의 조사전문가로서 참여해오고 있다.

제1차 건설고용포럼위원회 발제, “전자인력관리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 지난 4월 3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건설고용포럼위원회에서 우리 연구원의 박광배 연구위원은 “전자인력관리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피력했다.



노재화 원장,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주장하는 기고문 조선일보 게재

朝鮮日報

조선일보

오피니언

제29345호 2015년 5월 13일 수요일 A29

中企 살리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노재화
대한건설정책
연구원장

소규모 복합 공사는 전문 공사 2개 이상
이 복합되어 있으나 시공 과정에서 종합
적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은 단
순 복합 공사다. 공사 금액도 3억원 미
만으로 전문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
였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
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종합 건설업체는 건설업 등록 체
계 왜곡, 중소기업 보호 정책 역행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
으며,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규모 복
합 공사에 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한
잘못된 사실 전달이다.

첫째, 이는 건설업의 영업 범위를 구
분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비정상적
정상화'다. 단순한 복합 공사 즉, 주차
장 공사와 같이 공사 현장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할 필요가 없는 공사도 2개 이
상 면허가 필요한 복합 공사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종합 공사로 발주되는 문제
점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둘째, 중소기업이 많은 전문 건설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13년
기준 300인 이하 중소 건설업체 4만9073
개사 중에서 중소 전문 건설업체는 3만

9012곳으로 전체의 79.5%이다. 나머지
20.5%를 차지하는 중소 종합 건설업체
가 있으나, 실제 시공을 하는 업체보다는
입찰을 위한 회사가 많고, 대부분은 전문
건설업체보다 규모가 큰 회사다. 따라서
소규모 복합 공사가 중소기업 보호 정책
에 역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공사를 수주하면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종합 업체는 하도급을 하는 데
반해 전문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하여 우
수한 시공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경영
상태도 좋고 기술자도 충분하다. 전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소규모 복합 공사
에 대해 발주자들의 품질 만족도도 매우
양호하다.

넷째, 소규모 복합 공사 확대가 종합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우선 소규모 복합 공사는 금
액 외에 제한 규정이 많고, 발주자의 종
합 건설업체 발주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시장 규모는 1800억원대를 초과하지 않
는다. 따라서 6조5000억원 규모의 공사
가 전문 건설업체로 이전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복합 공사 확대에
관한 반대는 오해의 산물이다. 따라서 지
금이라도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
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발간

- 본 연구는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적용범위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장규모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사·분석하고, 이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수행되었다.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 입찰자료를 온라인 입찰정보 사이트를 통해 조사·분석하여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시장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발주현황과 저해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시장규모는 발주건수 기준 156건(12년), 201건(13년), 발주금액 기준 114.2억원(12년), 148.9억원(13년)이며, 이는 3억원 미만 공공공사 전체 발주건수의 0.06~0.07%, 발주금액의 0.16~0.2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 농로, 소규모 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등 생활밀착형 SOC를 확충하는데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가 활용되었으며, 공공 발주자의 품질 만족도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가 미미한 이유는 협소한 적용범위, 모호한 판단기준, 제도의 이해부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활성화 방안으로 적용범위 확대(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까지로 확대), 네거티브 방식으로 판단기준 명시(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의 성격만을 명시)를 제안하였다.
 -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적용범위가 10억원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할지라도, 시장규모는 1,807억 원에 불과하여 종합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215억 원의 부가가치와 2,277명의 고용이 추가 창출되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